

19세기 화약무기 발달과 騎兵의 변화*

최형국**

1. 머리말
2. 화약무기의 확대와 騎兵 전술 변화
3. 騎兵의 임무 변화와 馬上武藝의 쇠퇴
4.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조선은 상품경제발달에 따른 신분제변동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왕권의 약화로 시작된 세도정치의 출현이라는 혼란기의 시작이었다.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군정(軍政) 부분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삼정(三政)의 문란 중 군정의 폐해는 실질적인 군사력의 수준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병¹⁾의 경우는 조선 국방력

* 본 논문은 필자의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수원문화재단, 문학박사

1) 騎兵은 騎馬兵의 略字로 史料에서는 騎兵과 馬兵 혹은 馬軍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騎兵이라는 명칭을 騎兵과 馬兵 및 馬軍을 통칭하

의 근간이 되는 병종이었으나, 유지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보병대비 약 3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정도였기에 세도정치기에 가장 많은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²⁾

중앙군으로는 정조대(正祖代) 핵심 중앙 군영이었던 장용영(壯勇營)의 혁파와 더불어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상(番上) 규정 변화로 인하여 실질적인 군액(軍額)의 감소가 발생하였다.³⁾ 특히 17세기 말부터 군역상 기병의 납포군화(收布軍化)가 발생하면서 대청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지만,⁴⁾ 숙종대(肅宗代)부터 정조대까지 삼군문(三軍門) 도성방어체제와 맞물리면서 기병강화 정책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용영 혁파와 함께 중앙군영의 핵심 기병이 다시 예비군으로 전환되면서 납포군화(收布軍化)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방군의 경우 숙종대에 강화시킨 함경도의 친기위(親騎衛)와 평안도의 별무사(別武士)를 비롯한 정예기병부대가 급속하게 허설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⁵⁾ 이러한 허설화 양상은 비록 기병의 숫자는 증가하더라도 증원된 기병 개개인의 질적 담보가 없는 외형적 확대는 기병이 갖는 정예 병력적 특성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무예 수준의 질적 저하와 위상 저하를 동반하게 되었다.⁶⁾

기병에 대한 인식변화는 조선초 기병 중심의 전술체제에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병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가 이후 정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 기병에 대한 전략적 방어를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병증강 양상이

는 用語로 사용하였다. 다만, 원문 인용시에는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崔炯國, 「19世紀 前半期 朝鮮 騎兵 弱化의 背景 研究」 『학예지』 17, 陸軍博物館, 2010, pp.171~185.

3) 李泰鎮,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pp.298~318.

4) 金種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海安, 2003, pp.48~62.

5) 肅宗代 창설된 지방 기병부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의 論文을 참고하였다. 姜信曄, 「朝鮮後期 親騎衛」 『慶州史學』 13호, 慶州史學會, 1995;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親騎衛」 『韓國學報』 89, 一志社, 1997. ; 姜信曄, 「朝鮮後期 平安道の 別武士」 『韓國史論』 41, 國史編纂委員會, 1999, 참고.

6)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親騎衛」 『韓國史論』 41, 國사편찬위원회, 1997, pp.52~55.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병 전술 또한 많은 변화를 하였다.⁷⁾

그리고 전대인 정조대에는 국왕권 강화라는 인식하에 진행된 장용영의 창설과 더불어 오위제(五衛制) 복구론의 핵심인 기병증강이 집중적으로 요구된 상태라서 19세기의 군사적 변화 중 기병 전술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당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순조대(純祖代) 초반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은 당시 변화하는 군사적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이를 통해 당시 전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군의 핵심 병종인 기병의 변화 중 19세기 초반 발생한 홍경래의 난을 중심으로 기병의 변화와 마상무예 쇠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난의 전개 과정 중 정부군과 반군사이의 전투현황 및 전술평가 등의 구체적인 사료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화의 흐름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19세기 초반 기병 약화의 사회적 배경을 비롯한 군사 외 부적 요인의 경우 줄고(拙稿)에서 언급한바가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전투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⁸⁾

그리고 난 이후에 훈련대장 박종경(朴宗慶)에 의해 만들어진 『용원필비(戎垣必備)』의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가장 시급하게 변화시켜야 할 무기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당시 전술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순조대 이후에는 이양선을 침입을 비롯한 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병의 주력 임무 변화와 마상무예의 쇠퇴양상을 짚어보고 이러한 변화의 특성이 기병전술약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해 조선후기 기병과 마상무예사 중 19세기의 변화와 특징을 밝혀내어 이후 군제사 부분에서 기병 전술사나 무예사의 연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7) 壬辰倭亂 이후 騎兵 戰術 變化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李弘斗, 「임진왜란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白山學報』 74, 白山學會, 2006; 李弘斗,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 『역사와 실학』 42, 역사실학회, 2010; 崔炯國,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의 運用과 馬上武藝의 變化」 『역사와 실학』 38, 역사실학회, 2009; 崔炯國, 「朝鮮後期 騎兵 馬上武藝의 戰術의 特性」 『軍史』 70, 軍史編纂研究所, 2009.

8) 崔炯國, 「19世紀 前半期 朝鮮 騎兵 弱化的 背景 研究」 『학예지』 17, 陸軍博物館, 2010.

2. 화약무기의 확대와 騎兵 전술 변화

1)

19세기 초반 당시 변화하는 군사전술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흥경래의 난이었다. 이 난이 발생한 평안도는 국경에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였고, 지방기병강화에 따른 별무사를 비롯한 특수기병부대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18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변란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난의 진행과정 중 토벌군과 반란군의 전술운동 등 난의 전개과정을 통해 당시의 변화하는 전술체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⁹⁾

특히 토벌군과 반란군의 정예부대가 전투를 벌였던 박천(博川) 송림전투(松林戰鬪)의 경우는 조선후기 최후의 야전 기병전투였다. 당시 사용했던 전술과 전황은 이후 기병전술 및 마상무예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19세기 기병전술 및 마상무예의 추이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난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군은 1811년 10월 이후 평안도를 중심으로 군사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향무관(鄕武官)을 비롯한 부농층의 도움을 받아 다복동(多福洞)에 핵심인물들이 모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에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한 반군은 미리 해당 지역에 내응세력을 만들어 불과 십여 일 만에 반군에게 핵심 모성으로 사용된 정주성을 비롯하여 곡산, 선천, 철산 등지를 장악하였다.

이때 반군 중 광산노동자들의 우두머리격인 김창시(金昌始)는 반란의 정당성을 알리는 격문에서 “만약 어리석게도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鐵騎 5千으로 밟아 무찔러 남기지 않으리니, 마땅히 속히 請命하여 거행함이 좋을 것이다.”¹⁰⁾ 라며 반군의 군세를 철기 5천의 엄청난 규모라고 알리며 주변

9) 鄭奭鐘, 『傳統時代의 民衆運動』(하), 풀빛, 1981. pp.304~305.

10) 小田省吾, 『辛未洪景來亂研究』, p.39. “若有蠢爾項拒者 當以鐵騎五千 蹙之無遺矣 宜速請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였다.

그러나 반군 중 남진군의 움직임은 보면 갑주를 착용하고 장검을 패용한 선봉장 홍총각(洪總角)을 선두로 하고 전립에 구군복을 갖춘 도원수 홍경래와 책사 우군칙(禹君則)의 휘하에는 기병 40여 기에 보병 500명 정도의 규모여서 북진군과 반으로 세력을 나눈 반군의 대략적인 병력을 짐작케 한다.¹¹⁾

반군이 기동력이 우수한 기병을 핵심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평안도의 별무사를 적극적으로 선점한 쪽이 반란군 측이었기 때문이다. 반군은 12월 19일 정주성에 무혈입성하면서 성과 주변을 방어하던 기존의 군사조직을 흡수하였고,¹²⁾ 이 과정에서 정주지역에 배치된 별무사들이 적극 합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때 합류한 별무사 중 한처권, 김치여, 정상운, 이종순 등은 북진하여 관군과의 전투시 전술적 요충지인 귀성과 철산을 공격하는 선봉군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¹³⁾

그리고 별무사 김치준, 한세대, 이장복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별무사들은 기존의 군사조직에서 근무한 것처럼 반군의 별장과 천총 등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아 반군의 기동력을 크게 증진시켰다.¹⁴⁾

이러한 별무사들에 대한 반군의 선점은 자발적인 거병 참여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동원도 함께 진행되었기에 더욱 많은 숫자의 별무사들이 반군측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반군의 핵심 세력들이 지방의 향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었기에 군적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강제적 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기존 군사조직의 흡수를 통하여 북진군이 철산으로 진격할 때에는 부원수 금사용의 휘하에 보군 1,200여 명과 기병 80여 명으로 반군의

命舉行宜當者.”：鄭奭鐘，『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한길사，1994. pp.200~202. 재인용.

11) 『關西平亂錄』 辛未 12月 21日.

12) 『關西平亂錄』 壬申 1月 25日.

13) 『關西平亂錄』 壬申 1月 25日, 李惠甲 供招.

14) 鄭奭鐘，『傳統時代의 民衆運動』(하)，풀빛，1981. pp.312~318.

15) 姜錫和，「朝鮮後期 平安道の 別武士」 『韓國史論』 41·42집，1999. pp.635~636.

군세가 증가하였다.¹⁶⁾ 이러한 군세확장에 따라 철산은 동월 23일에 반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내응세력의 도움을 발판으로 별다른 전투 없이 주변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는 12월 20일에 이르러서야 평안병사 이해우(李海愚)의 밀계를 통해 최초로 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¹⁷⁾ 그러나 반군은 이미 그 세력이 가산, 박천, 광산, 정주 등 평안도의 주요 지역을 모두 장악하여 군세를 높이는 중이었기 때문에 토벌군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흥주(申鴻周)를 정주목사로, 정주성(鄭周誠)을 가산군수로 임명하는 등 주변 지역의 수령을 빠르게 교체하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벌 및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¹⁸⁾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미 반란에 가담한 정경행(鄭敬行)을 광산군수로 새로 임명하는 등 중앙정부의 토벌과정에서 큰 오점이 남기도 하였다.¹⁹⁾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난 초기에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외에도 정주목사로 발령한 신흥주를 단 하루 만에 다시 영변부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정주에는 문관출신인 전승지(徐春輔)를 보내는 등 난의 초기대응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의 토벌군 구성은 동월 24일에 시작되었는데, 금위영에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요헌(李堯憲)을 양서순무사로 임명하여 순조가 직접 상방검을 하사하고 토벌군 구성에 들어갔다.²⁰⁾ 당시 토벌군의 핵심 장수로는 순무중군에 박기풍(朴基豐), 종사관에는 서능보, 김계온 등이 임명되었고 27일에 보군 7초를 영솔하여 토벌활동을 시작하려 하였다.²¹⁾ 그러나 이때 까지도 기존에 임명된 수령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꾸거나 순무사의 출진

16) 『關西平亂錄』 壬申 1月 25日, “鐵山入去軍兵段 以定州 郭山 宣川 三邑步軍 合聚以送數近一千二百餘名 騎兵 亦爲八十名 而宣川所聚賊黨 盡爲捲兵 往彼鐵山是白加尼.”

17)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12月 甲子.

18)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12月 丙寅.

19)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12月 丁卯.

20)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12月 戊辰.

21) 上同, “以李堯憲爲兩西巡撫使 中軍朴基豐 從事官徐能輔 金啓溫 竝單付.”

보다 선봉군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시키는 등 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²²⁾

이때 먼저 출발한 선봉군으로 좌별장 김처한(金處漢)의 총괄하에 훈련도감의 보군 1초, 금위영 경중초 1초, 마병 1초, 개성부의 마군 1초를 각 장관이 영솔하게 하였다.²³⁾ 그러나 김처한이 군령을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출정하기를 거부하자 김처한을 군문효시하고 중군장 박기풍이 대신 출정도령을 맡아 이들을 지휘하였다.

중앙정부 토벌군의 출정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별무사들에 대한 관군의 징집도 함께 이뤄졌다. 의주부윤은 장군 3초와 백성 중 자원자로 편성된 1초를 비롯하여 마상무예에 능한 별무사를 모아 거점 방어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²⁴⁾ 또한, 주변지역의 별무사들의 경우 개별적인 판단하에 의병신분으로 관군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토벌군으로 출정한 기병의 장비는 오직 편곤과 궁시에만 편중되어 이들에 대한 무기 확보를 위해 전현감 이택관(李宅觀)이 협도 4병을 더 추가하는 등 기병의 활용무기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월 29일에는 박천 송림에서 당시 반란군과 가장 큰 접전이면서 조선후기 최후의 기병 야전 전투였던 송림전투가 벌어졌다. 전날인 12월 28일 평안감사의 보고를 보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하였는지가 확인된다.

臣의 감영에서는 中軍 李鼎會가 壯丁 十部 가운데 5哨의 군사를 거느렸는데, 巡中軍의 親隨帶率 1백 9명, 將官 76명, 槍劍·射銃手 5백 33명, 標下 1백 50

22) 『純祖實錄』 卷14, 純祖 11年 12月 庚午.

23) 上同, “巡撫營啓言 訓局步軍一哨 禁衛營京中哨一哨 馬兵一哨 開城府馬軍一哨 各該將官率領 使左別將金處漢都領 明日曉先爲出征.”

24) 『關西平亂錄』 辛未 12月 13日.

25) 『西征日記』 上, 辛未 12月 29日, “馬軍器械 只鞭棍弓矢而已 故往見府中軍 前縣監李宅觀 本府狹刀四柄借來.”

명, 塘報軍 및 火兵 44명, 戰馬 46마리입니다. 이제 막 전진하여 兵營의 군사와 협력하여 출전하였으며, 지금 또 列邑의 군사에서 정예를 뽑아 거느리고 계속 전진하게 하여 後殿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중략)... 藥山山城의 경우는 寧邊府使 吳淵常·雲山郡守 韓象默·价川郡守 任百觀·泰川縣監 柳鼎養이 네 고을의 군사를 징발하여 힘을 합쳐서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慈母山城의 경우는 소속된 일곱 고을의 守堞 군사를 징발하여 兼任管城將인 殷山縣監 金箕殷이 거느리고 막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영변과 安州 사이에 개천으로 곧장 나가는 사잇길이 있는데 가장 허술하게 여길 만하기 때문에 영변 부사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염탐하며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또 개천 군수로 하여금 一枝兵을 내어 進駐시켜 막아 지키게 하였으며, 肅川에서 永柔·龍岡을 경유하여 三和로 轉入하는 경우는 安岳으로 곧장 치닫는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三和府使 金煥과 龍岡縣令 申在業으로 하여금 각기 該邑의 군사를 거느리고 엄중히 더 막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祥原과 三登은 모두 바로 兩西의 경계가 교차되는 지역이며, 成川과 陽德 또한 關北과는 가까운 이웃이기에 네 고을의 수령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각각 要害處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중략)... 이 달 24일과 26일 밤에 횃불 1백여 把를 박친 지역의 松林村에다 벌여 놓았습니다. 淸川江과의 거리가 10리 즈음에 불과하므로 丁壯軍 9哨를 가려 뽑아 兵馬虞候 李海昇·咸從府使 尹郁烈·順川郡守 吳致壽로 하여금 거느리고 전진케 하여 송림촌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먼저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中軍 李鼎會에게 거듭 경계하여 군병을 재촉해서 공격하여 적을 무찌르는데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²⁶⁾

26) 『純祖實錄』卷14, 純祖 11年 12月 壬申, “臣營中軍李鼎會 領率壯十部中五哨兵 纔已前進, 巡中軍親隨帶率一百九 將官七十六 槍劍 射銃手五百三十三 標下一百五十 塘報軍及火兵四十四 馬四十六 與兵營兵 協力出戰 而方又精抄列邑兵 領率繼進 俾作後殿 …(中略)… 藥山山城 則寧邊府使吳淵常 雲山郡守韓象默 价川郡守任百觀 泰川縣監柳鼎養 調發四邑兵 方並力守城 慈母山城 則徵發所屬七邑守堞軍 兼任管城將殷山縣監金箕殷 領率防守 寧邊安州間 有直出价川之間路 最爲可虞 故嚴飭寧邊府使 使之詞察 又使价川郡守 發一枝兵進駐防守 自肅川 由永柔 龍岡 轉入三和 則有直達安岳之捷路 故使三和府使金煥 龍岡縣令申在業 各率該邑軍 嚴加防守 祥原 三登 皆是兩西交界之地 成川 陽德 亦與關北隣近 故嚴飭四邑守 各守要害 …(中略)… 今二十四日六日夜 炬火百餘把 擺列於博川地松林村 距淸川江 不過十里許 抄擇丁壯軍九哨 使兵虞候李海昇 咸從府使尹郁烈 順川郡守吳致壽 領率前進 先擊松林村留屯之賊 申飭中軍李鼎會 催趨軍兵 協助勦擊”

앞의 사료에서처럼 관군은 송림촌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었으며, 평안도의 핵심지역인 평양성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도성에서 출발한 중앙 토벌군은 아직 박천지역에 도착하지 못하여 이곳에 미리 포진하고 있던 관군의 군세는 반란군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군은 12월 29일 세 갈래길로 나뉘 반군이 진형을 갖추고 있던 송림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전투는 병우후 이해승(李海昇)이 2초를 이끌고 풍진을 건너 송림의 동쪽 입구에 진을 치고 좌영장 함중부사 윤욱렬(尹郁烈)이 4초를 이끌고 송림의 서쪽에 진을 쳤다. 마지막으로 우영장 순천군수 오치수(吳致壽)는 4초를 이끌고 우후진의 동쪽에 진을 쳐 전체 합영의 모습이 봉둔진(蜂屯陣)처럼 적을 감싸 안은 듯한 형세를 취했다.²⁷⁾ 이후 송림리 전투의 시작은 반군의 선제공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군은 관군의 진형을 상대하기 위해 세 개의 부대로 나뉘 공격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먼저 한 부대가 우후진으로 진격하였다. 첫 공격의 맹렬함으로 인하여 관군의 중앙군이 무너져 내렸으나 광산 전군수 이영식을 후영장으로 내세워 1천의 병력이 반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선봉을 제압할 수 있었다.

특히 관군은 전투가 시작되면서 기병을 이용한 빠른 진압작전을 구사하는 전통적인 전술보다도 진형을 미리 갖춘 후 조총과 화포 등 각종 화기와 활을 이용한 원사무기로 반군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관군 또한 선봉기병으로 장사군관 40명이 반군의 기병과 마상교전을 치렀지만, 이는 주요한 전술이 아니었다.²⁸⁾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군은 기병을 중심으로 주로 결진해 있던 관군의 중

27) 『陣中日記』 辛未 12월 29일, “(平安兵使報 巡撫營爲牒報事 陰) 官軍 擊破松林賊 時勤王兵多至 分三路出戰 兵虞候李海昇 領二哨渡楓津 陣于松林洞口 左領將咸從府使 尹郁烈 領四哨陣于虞候陣之西 右領將順川郡守 吳致壽 領四哨 陣于虞候陣之東 三陣對圓 百步相隔.”

28) 『純祖實錄』 卷15, 純祖 12年 1月 乙亥.

앙을 돌파하는 전술을 취했는데, 몇 차례의 접전 과정에서 반군의 선봉을 이끌던 기병 3~4명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자 사기를 잃고 갑옷을 벗어 던지며 산야에 흩어져 도망쳤다.²⁹⁾ 이러한 관군의 화약무기 위주의 전투는 가산과 박전을 수복할 때 곽산군수 이영식이 이끄는 관군의 전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³⁰⁾

그리고 곽산전투에서도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곧장 앞으로 전진하여 포와 활을 일제히 쏘고 칼날을 무릅쓰고 충돌했더니, 몇 합을 싸우기도 전에 적군이 사망으로 흩어지며 무너졌다.’³¹⁾ 라고 하여 화약무기를 통한 선제공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군에게 있어서 송림리 전투 패배는 남진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이후 정주성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반란군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귀성을 점령한 북진군의 일부는 남진군의 송림리 패전 소식으로 인하여 귀성을 버리고 모두 정주성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등 이후 전투에서도 송림리 전투의 영향은 지대하였다.³²⁾

그리고 이 전투에서 관군이 사용한 전술 중 기병의 돌격방식이 아닌 결진 후 활과 화약무기 등의 원사무기를 이용한 전술은 흥경대 난을 결말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군과 반군이 마지막 전투를 펼쳤던 정주성에서도 관군은 대완구, 자모포를 비롯한 대형 화약무기와 조총과 활 등

29) 『陣中日記』辛未 12月 29日, “賊亦分兵三枝 一則繞出虞候陣之後 一則從赤峴繞出 一則直向虞候陣 橫馳挑戰 賊先鋒總角 躍馬揮劍大喝曰 兩陣成敗 在於此日 若有當我者速來 時虞候陣勢單幾危 請與左領將合陣 左領將曰 臨戰不可示弱 仍遣壯士十餘 以助其勢 時兵使在百祥樓 望見官軍 郭山前郡守 李永植爲後援將 急出躡賊後 於是賊兵一枝 還收其尾 而總角之凶猛極憐 故官軍之居前者 沮氣欲退 左領將大叱欲斬之 諸官軍 皆願效死 鳴鼓督戰 發矢放銃 進逼賊陣 賊騎三四 中丸落馬 戰未數合 賊 遂大潰 曳兵投甲 奔竄山野 官軍乘勝 斬首數百 進至松林 火燒賊窟 仍從軍馬 前至津頭 賊徒走 已遠矣 遣兵入多福洞.”

30) 『西征日記』上, 壬申 正月 初十日, “郭山郡守 李永植 率領餘兵五百 自北門突出 雷鼓吶喊 飛砲而進 未至百步 賊騎捲回 賊徒一齊潰散.” :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1月 丁亥, “又有後軍之相續不絕者 故乘其未及成陣 鼓噪直前 砲射齊發 冒刃衝突 戰未數合 賊軍四散奔潰 追亡逐北 至四五里許 斬首爲五十級 生擒爲六人.”

31)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1月 丁亥, “故乘其未及成陣 鼓噪直前 砲射齊發 冒刃衝突 戰未數合 賊軍四散奔潰.”

32)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1月 戊寅.

의 원사무기 위주의 공성전술을 펼쳐 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³³⁾

특히 정주성의 북장대 지역에 화약 1千 710斤과 연지(燃紙) 소포 90근 등 총 1천 8백근의 화약을 매설하여 폭발시키는 전술은 기존의 기병과 보병 연합의 공성전술에서는 보기 드문 전술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³⁴⁾ 반면 정주성 공격시 관군 기병은 포수에 비해 숫자도 부족해서 주로 반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³⁵⁾

결과적으로 반란군과 관군 모두 난 초기에 평안도 지역의 핵심 기병인 별무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려 했지만, 실제 전투에서 관군의 전술은 기병을 이용한 돌격전술보다는 활과 화약무기를 이용한 원사무기위주의 전술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군의 경우 정조대에 완성한 거·기·보(車·騎·步) 통합전법에서 기병의 전술적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순조대 초반 기병 전력의 약화로 인해 황해도와 금위영 별대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평안도 별무사를 비롯한 기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종을 통하여 난을 진압하려 한 것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³⁶⁾

그런데 흥경래 난 때에 별무사 가운데 이미 반군에 가담한 자가 많아 이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전술변화에 작용했을 것이다.³⁷⁾ 반면 상대적으로 난 초기부터 별무사를 효과적으로 포섭한 반군은 기병의 돌격전술을 구사하였지만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당시 기병이 활용한 마상무예 역시 관군의 경우는 활용한 장비를 볼 때 원거리에서는 기사, 근접거리에서는 마상편곤을 주로 활용하였고, 반란군의 경우는 마상환도 이외에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 보이지 않는

33)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1月 己丑.

34)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4月 癸亥, 破城事蹟.

35)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2月 丙寅.

36) 이러한 純祖代 초반 기병 약화 현상은 軍政의 문란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이와 함께 保人의 감소 및 기병의 복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발생한 일로 판단된다. 특히 戰馬로 활용된 淸의 湖馬나 土山馬 중 크기가 큰 말에 대한 馬價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戰馬를 확보하지 못한 실질적인 문제도 기병 허설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純祖代 초반 기병 약화의 배경은 拙稿, 「19世紀 前半期 朝鮮 騎兵 弱化的 背景 研究」, 『학예지』 17, 陸軍博物館, 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37) 姜錫和, 「朝鮮後期 平安道の 別武士」 『韓國史論』 41·42집, 1999, pp.636~637.

다. 그러나 반군에 가담한 기병 중 별무사의 경우는 시취과목으로 기추(騎芻), 편추(鞭芻) 등을 시험 보았기에 관군과 비슷한 무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군의 패배원인 중 하나는 진법에 있었다. 전투가 일어난 송림리 지역은 언덕을 낀 평야지대였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관군은 이미 언덕을 배후로 하여 화약무기인 화포와 조총으로 사전 진형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조직적으로 반란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위의 전투 상황에서 보다시피 당시 관군 전술의 핵심은 거(車)·기(騎)·보(步) 통합전법에서 기병의 돌격전법을 제외하고 전거(戰車)를 중심으로 한 화포와 개인 보병용 조총의 연발 사격을 통해 반군을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장의 환경에서는 기병의 돌격전보다는 보병의 조총을 활용한 집중사격이 효율적이며,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엄폐물이 없는 상황을 관군이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⁸⁾ 특히 난의 마지막 전투지였던 정주성 전투의 핵심은 대구경 화포와 폭약을 이용하여 성곽의 일부를 파괴하는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화약무기의 운용기법이 기병과 단병접전술을 능가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관군이 주로 활용한 화약무기를 통한 선제 공격 전술은 이후 조선군 전술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정조대까지 핵심 전법으로 확립된 거·기·보 통합전에서 거병(車兵)과 보병의 화약무기 위주의 전법으로 변화한 것은 기병의 쇠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순조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훈련도감을 비롯한 삼군문에 배치된 군기 목록을 살펴보면 주력으로 사용하던 무기가 조총을 비롯한 다양한 화약무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1>은 『만기요람』의 군기를 도식화한 것이다.

38) 鄭爽鐘,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pp.226~229.

訓 練 都 監		禁 衛 營		御 營 廳	
조총	8,239자루	조총	13,638자루	조총	6,488자루
천보총	4자루	천보총	4자루	단총	598총
마상총	205자루	순환포	3좌	천보총	1자루
동포	119좌	위월포	79좌	4 5호유불랑기	60위
호준포	17좌	승자동포	2좌	목 철모포	4위
순환포	10좌	불랑기	60좌	호준포	1위
홍이포	2좌	동포	10자루	순환포 동포	119자루
불랑기	65자루	화통류	1,401자루	삼혈모류	70자루
자포	335자루	연환	2,604,999개	이회통	200개
동소총	11자루	화차	56승	화차	10승
삼혈총	153자루	차총	30자루	제철총	220개
삼당편	1자루	일외봉총류	90문	일외봉총류	180문
사당편	1자루	차창	288자루	능철	32,167개
포곤	2자루	환도	11,637자루	육량전	53개
연환	1,809,792개	능철	13,500개	활	11,924장
능철	3,131개	활	6,781장	장전	6,775부27개
활	10,558장	노흑각대궁	15장	편전	4,106부2개
장전	5,256부14개	노교자대궁	216장	통아	2,547개
편전	5,600부	수노궁	499장	자팔장전	20부
통아	403개	궁노	239좌	궁노전 기	1,205부 119좌
체전	684부7개	장전	4,313부10개	수노전	22개
장전류	172부	편전	4,040부25개	화약	92,895근9냥
수노궁	102장	통아	1,293개	석유황	5,155근2냥
노전	300부42개	별팔장전	2부	연환	2,771,856개
화약	181,360근	수노전	793부5개	화전	3,419지
염초	338근	화약	99,054근10냥	화전죽	4,097개
석류황	4,904근	석유황	159근 8냥	화전죽	3,523개
약선	1,026사리	약선	2,813조	방기	13자루
화승	4,042사리	화전	1,872자루	화포식	15권
화전통	5,566개	소발화	246자루	소발화	130지
발화류	384자루	갑주	200부	화약통류	24,950부
갑주	3,830벌	거마창	455개	화승	323사리
거마창	348좌	창 대도류	727자루	갑주류	376부1,186벌
편담	45자루			무명제투구	1,182부
화차	121승			거마창	576총
편곤	2,774자루			편곤	573자루
환도	7,219자루			환도	5,928자루
창 대도류	311개			창 대도류	677자루

39) 본 도표는 『萬機要覽』의 무기목록을 필자가 재구성하여 동류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槍 大刀類에는 長槍, 旗槍, 偃月刀, 挾刀, 梨花槍, 銃鉞 등을 同類로 묶었다. 그리고 『萬機要覽』에 기록된 軍器 기록 중 三軍門은 아니지만, 핵심 軍營인 龍虎營의 경우는 주로 騎兵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대구경 포보다는 개인 단병무기가 여타의 軍營에 비하여 많이 배치되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병접전에 사용하는 창 및 대도류의 무기는 삼군문에 총 1,715자루가 있었던데 반해 조총은 28,365자루에 위원포(威遠砲)와 불랑기(佛狼機) 등 다양한 화약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이를 통해 당시 전술체계에서는 단병접전이 중심이 되는 전술보다는 화약무기를 활용한 전술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군영의 무기 배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경래의 난을 거친 후 편찬된 『용원필비』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화약무기 위주의 전술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홍경래 난 시 훈련대장을 맡았던 박종경(朴宗慶)은 난이 끝난 후 군대를 재차 점검하고 관련 장부를 검토해 보는 등 국가의 외란과 내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영의 무기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용원필비』의 내용을 보면 『만기요람』의 무기구성 비교보다는 화약무기 중심의 전술 변화를 확실히 살펴볼 수 있다. 당시 박종경은 순조의 모인 수빈박씨의 오라비로 아버지인 박준원(朴準源)과 더불어 순조대 별열 가문으로 알려진 반남 박씨(潘南 朴氏)의 대표적 인물이었다.⁴¹⁾

장용영이 혁파된 후 핵심군영이 된 훈련도감의 대장직을 맡아 군문의 일을 보던 그는 임기 중에 발생한 홍경래 난의 진압과 더불어 이러한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했다.

당시 박종경에 대한 평가는 “文權 · 武權 · 銓權 · 籌權과 甲兵의 권력, 錢穀의 권력, 田賦의 권력, 主司의 권력, 市井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였다.”⁴²⁾ 라고 할 정도로 강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군영의 무기를 재점검하고, 전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0) 『萬機要覽』에 실린 五軍營에 배치된 鳥銃은 모두 42,530자루였다.

41) 박종경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姜信曄, 『조선의 무기II』, 붕명, 2004. pp.5~11. 특히 이 연구서는 『戎垣必備』에 대한 최초의 번역서로서 조선 후기 무기 발달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박종경에 대한 사료는 그의 문집인 『敦巖遺稿』(古 3428, 706)와 묘지명이 실린 『梅山集』이 대표적이다.

42) 『純祖實錄』卷15, 純祖 12年 11月 丙子, “世所稱文權武權銓權籌權 甲兵之權 錢穀之權 田賦之權 主司之權 市井之權 并在掌握 揚揚得得 左柄右衡 罔有忌憚.”

『용원필비』의 서문에서 밝힌 그의 저술 의도는 다음과 같다.

당시 나는 훈련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장부를 살피고 군대를 점검해 보았더니 사용할 만한 무기가 없었다. 따라서 도무지 공격과 수비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었다. 반란이 비록 평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 때문에 매우 걱정이 앞섰다. 이에 조정에 자세히 아뢰고는 度支部(戶曹)에서 소장하고 있는 구리, 쇠, 면포 등을 얻고 봉급의 일부를 떼어 모두 5만-6만 전 정도의 돈을 관청에 보내어 만들게 하고 監造都監이라고 일컫고는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⁴³⁾

박종경은 이러한 군국의 일을 위하여 군무를 잘 익힌 무관 2명을 차출하여 도청을 삼고, 지혜와 기술이 있는 간사 2명을 구하여 감관으로 삼아 일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신무기의 개발 및 기존 무기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로 집약된 것이 『용원필비』였다. 따라서 『용원필비』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한 무기서가 아니라, 흥경래의 난을 거치면서 당시 변화하는 전법의 흐름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병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원필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계총론(器械總論)⁴⁴⁾이라 하여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의미와 본서에서 다루는 무기에 대해 간단한 원리 해석을 하였으며, 다음 장에 크게 화기류, 봉인류, 진류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화기류는 총통, 완구, 장군전을 비롯한 대형화기뿐만 아니라 개인 병기에 속하는 조총, 땅에 매설해 폭발시키는 매화(埋火) 등 총 22가지의 화약무기의 제조 방법과 사용법을 수록하였다. 이 중 화약무기류를 도식화시켜 보면 <표-2>와 같다.

43) 『戎垣必備』序, “時余忝居元戎 按簿閱視 凡兵仗器械 皆鈍鈍闕略 攻守無所宜 緩急無所恃 亂雖已 余庸憂懼 乃悉聞于朝 得度支部所藏銅鐵幾許 綿布幾許 又捐俸錢幾許 並五六萬計 歸營工作 稱監造都監 大設施也.”

44) 器械라는 단어는 전통시대에 칼이나 활을 비롯한 무기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	/	
1	天字銃筒	숙동 1,209근	30량	1,200步	대장군전 발사
2	地字銃筒	숙동 724근	24량	800步	장군전 발사
3	玄字銃筒	숙동 155근	4량	2,000步	차대전 발사
4	黃字銃筒	숙동 130근	3량	1,100步	피령전 발사
5	別大碗口	숙동 1,100근	70량	350步	진천뢰 발사
6	大碗口	숙동 528근	35량	400步	진천뢰 발사
7	中碗口	숙동 290근	35량	350步	진천뢰 발사
8	大將軍箭	2년생 나무 50근	11자 9치	900步	총통 발사체
9	將軍箭	2년생 나무 33근	9자 2치 3푼	2000步	총통 발사체
10	次大箭	2년생 나무 7근	6자 3치 7푼	2000步	총통 발사체
11	皮翎箭	2년생 나무 3근 8냥	6자 3치	1,100步	총통 발사체
12	童車	2년생 나무(수레)	가로 : 3자5치 세로 : 1자 2푼	-	총통 운반체
13	飛震天雷	수철 1,200근	5근	300步	완구 발사체
14	團石	돌 별대-120근	-	400步	완구 발사체
15	水鐵鉛衣丸	수철 및 납천자 -3치 6푼	-	10里	총통 발사체
16	鳥銃	-	-	-	개인화기
17	飛蒙砲	철	-	독화약과 철사	독약성분의 포
18	鑽穴飛砂 神霧筒	풍화회, 주사 등 독극물	-	10리 풍향이용	독약성분 화전방식
19	埋火	화약선으로 목통 연결	巢藥 2-3근	원거리 매설	지연 화공법
20	木筒	나무	巢藥 5냥	원거리 매설	매화시 사용
21	木火獸車	수레	화기 24건	근거리 방어용	독화 및 열화
22	火車	수레	鳥銃 100柄	-	일제사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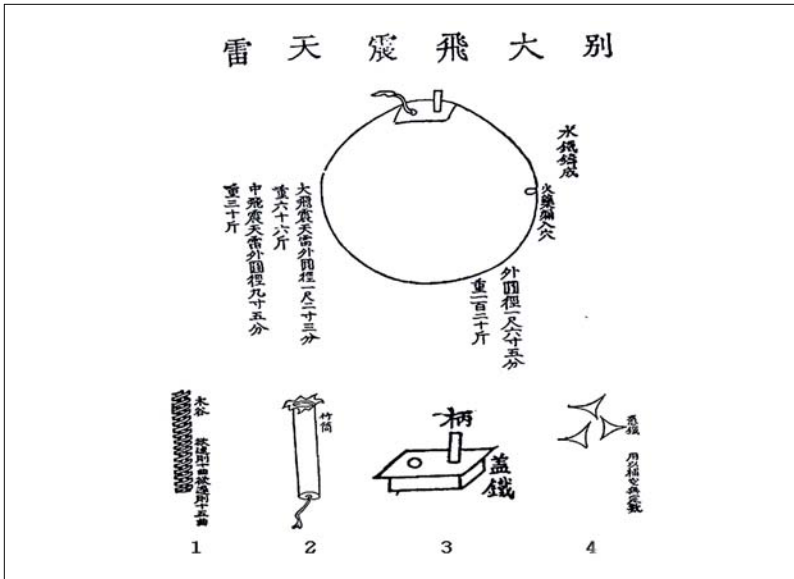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화약무기를 설명할 때 전도(全圖)와 분도(分圖)를 함께 그려 지방 군영에서 이를 보고 직접 무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적을 속이는 화기로 대완구에 장전하여 발사하는 별대비진천뢰의 경우는 크게 4개의 분도와 전도를 함께 그려 놓고 이에 대한 폭발력 비교와 더불어 사용시 주의사항까지 기재하였다.

45) 본 도표는 『戎垣必備』에 수록된 무기들 중 火藥武器를 중심으로 도식화시켰다.

다음의 <도-1>은 『용원필비』의 전도와 분도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화기류 다음으로는 창과 칼 및 갑주를 비롯한 개인용 단병무기인 봉인류 11가지를 수록하였는데, 이중 화약병기⁴⁶⁾로 검용 사용가능 한 것이 4가지가 포함되었다. 화약무기 검용 단병무기로는 이화창, 화창, 소일와봉, 신기만승 화룡도 등이며 앞서 설명한 화기류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33개의 무기들 중 25개가 화약무기와 연관된 것으로 당시 화기류에 대한 전략적 확충을 중심에 두고 책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47)



46) 여기서 말하는 화약무기 검용 병기는 적과 근접거리에서 사용하는 화약무기로 창 자루에 화약이 담긴 紙筒을 달아 적을 공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화약무기의 발달사 중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火氣에 의한 열로 공격을 가하거나, 화약의 연기를 이용하여 시각을 교란 혹은 화약 속에 유황이나 석회가루를 첨가하여 호흡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47) 원래 『戎垣必備』에 기록된 別大飛震天雷의 分圖의 크기는 全圖와 동일한 크기지만 논문 의 지면상 크기를 조정하였다.

특히 맨 마지막 장에는 군사들이 전장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진류를 수록하였는데, 이를 보면 화거첩진도(火車疊陣圖)와 화거방진도(火車方陣圖)로서 전체적으로 화기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법만을 수록하여 화약무기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원필비』에 수록된 진법 중 기병과 보병, 거병(車兵)의 연합진법을 살펴보면 당시 변화하는 화약무기 집중방식의 전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火車疊陣圖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척후병이 경보를 울리면 포 1발을 쏘아 남백색 高招旗를 세우고 앞을 향하여 馬兵(騎兵)을 점고해서 앞으로 나아가 적을 차단한다. 포 1발을 다시 쏘면 홍색 高招旗를 세우고 좌우로 火車 100량과 목화수거 20량을 모두 군대의 5보 앞으로 전진시키고,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일렬로 진영을 갖춘다. 또 몸을 돌리라는 신호의 나팔소리를 불면서 행군하다가 긴급하게 이동하라는 신호가 있으면 대개 진영을 갖추어 보군을 나누어 전층과 후층으로 만든다. 포 1발을 쏘면 남백색 기를 세워 안으로 향하여 馬兵을 點鼓하여 층내의 좌우로 후퇴시킨다. 적이 백 보 이내로 침입하면 포 1발을 쏘고 天鵝聲을 불어서 火車·木火獸車가 일제히 발사하게 한다. ... (중략) ... 먼저 발사한 자는 다시 장전하여 교대로 쏘고 장전하므로 비록 종일 포를 쏘더라도 끊이지 않는다. ... (중략) ...적이 패하여 도망하면 騎兵을 풀어 패잔병을 추격하여 물리친다.⁴⁸⁾

위의 사료를 보면 홍경래의 난 후 변화하는 전술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단하게 위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적의 출현에 따라 가장 먼저 기병이 적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후 이동식 포인 화거와 목화수거⁴⁹⁾를 횡렬로

48) 『戎垣必備』 「陣類」 火車疊陣圖, “下營時 先以步軍爲子壁 外疊馬兵爲中層 … (中略) … 塘報報警 放砲一聲 立藍白高招 向前 點馬兵出前遮斷 放砲一聲 立紅高招 左右列火車一百輛 木火獸二十輛俱出兵 前五步 聽單擺開 一字單列 吹轉身喇叭 點緊鼓 吹擺隊伍 步軍分爲 前後層 放砲一聲 立藍白高招向內 點馬兵 收退層內左右 賊入 百步之內 放砲一聲 吹天鵝聲 火車木火獸齊 放一層 … (中略) … 先放者復裝 輪放輪裝 雖終日砲放不乏 … (中略) … 賊敗後踵 使騎兵 追奔逐北.

49) 木火獸車는 茅元儀의 『武備志』에 수록된 火龍捲地飛車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를 火藥武

대량 전진 배치시켜 일제포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步兵은 위급 상황시 화거의 전후로 배치시켜 적의 돌격에 대비한다. 적이 100보 내로 접근하면 화거가 일제포격을 가한다. 이후 적의 재돌격 때에는 각 층마다 교대로 일제사격을 가하여 적의 사기를 제압한다. 마지막으로 적이 패퇴하면 기병을 출격시켜 뒤를 쫓는다.

이처럼 기병의 전술적 활용 가치는 화약무기가 발전하면서 극도로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방진(方陣)을 이용한 전투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오위진법(五衛陣法)』 중심으로 훈련된 조선전기나 중기의 경우 기사병(騎射兵)과 기창병(騎槍兵)이 직접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돌격전법이 핵심 전법이었지만⁵⁰⁾, 후술하겠지만 『응원필비』의 방진에서 화포병이 먼저 공격을 하고 기병은 적의 기습전에 대비하여 화포병 중심의 아군 진형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투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포(放砲)라는 신호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전장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당시에는 화약무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깃발과 각종 악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사신호체계가 화약무기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다.⁵¹⁾

이러한 진법 중 화거의 중요성은 횡렬식 첩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했던 방진에서도 더욱 부각되었다. 『응원필비』의 화거방진도를 살펴보면 먼저 보병을 이용하여 자력을 삼고 외루에 기병을 중

기의 대량발사를 위해 개량한 무기이다. 『戒垣必備』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나뭇을 이용하여 수레를 만들고 아래로는 바퀴 두 개를 달아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사자, 범, 표범 등의 짐승 형상을 새겨서 화기 24건을 속에 감추고 불은 짐승의 입에서 뿜어 내는 神火, 毒火, 法火, 飛火, 烈火를 따르므로 화기가 차례대로 발사되면 화약은 진실로 법식대로 사용된다. 수레별로 장사 4명이 교대로 밀고 굴린다. 양쪽에는 飛翔神牌를 설치하는데, 폐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을 내며, 화살과 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라며 이 무기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50) 『五衛陣法』 「勇怯之勢一」; 『癸丑陣說』 「應敵」. 朝鮮 前期의 兵種에 따른 진형배치도를 보면 步兵이 전면에 서고, 騎兵이 후면에 배치된다. 그러나 적과 교전이 일어나면 후미의 騎兵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步兵은 진을 구축하면서 후속공격과 방어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朝鮮 前期의 기병전술에 대해서는 拙稿,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的 運用과 馬上武藝의 변화」 『역사와 실학』 38호, 역사실학회, 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51) 崔炯國, 「朝鮮後期 軍事信號體系 研究」 『학예지』 15, 2008. pp.29~33.

층으로 삼아 사면에 화거와 목화수거를 배치하여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법이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방진에서 화약무기 운용법 및 기병의 움직임은 살펴볼 수 있다.

진영에서 내려올 때에 먼저 步軍을 자벽으로 삼고 외부의 馬兵을 층층으로 삼는다. ... (중략) ... 적이 올 때에 척후병이 멀리서 경보를 울리면 해당 면의 木火獸車 5량을 1층을 일제히 쏘아서 응한다. 척후병이 가까이서 경보를 울리면 木火獸車로 또 2층을 일제히 쏘아서 응한다. 적이 百步 내에 들어오면 木火獸車 3층을 일제히 쏘아서 응한다. 뒤에 위치한 누대 위에서 포 1발을 쏘면 天鵝聲을 불고 중군도 포 1발을 쏘며 天鵝聲을 불면 해당 면의 火車를 한꺼번에 1층을 일제히 쏘아서 적으로 하여금 접근하여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적이 만일 4면으로 공격해오면 4면의 火車도 일제히 발사한다.⁵²⁾

위의 사료에서 기병의 역할은 보병과 더불어 화거를 보호하는 임무가 핵심적이며 외첩의 방어이기 때문에 적의 돌격에 대비하여 빠른 기동력으로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설명된 화거방진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도-2>와 같다.

이전의 방진에서 가장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병전술이었던 반면 『용원필비』의 방진에서는 기병은 방어에 치중하고 주된 공격으로 집중포격을 가하게 되는 즉, 화약무기 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전술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화약무기에 의한 선제공격방식은 앞서 살펴본 홍경래 난 시 핵심전투였던 박천 송림리 전투를 비롯하여 광산 사송야전과 정주성 전투에서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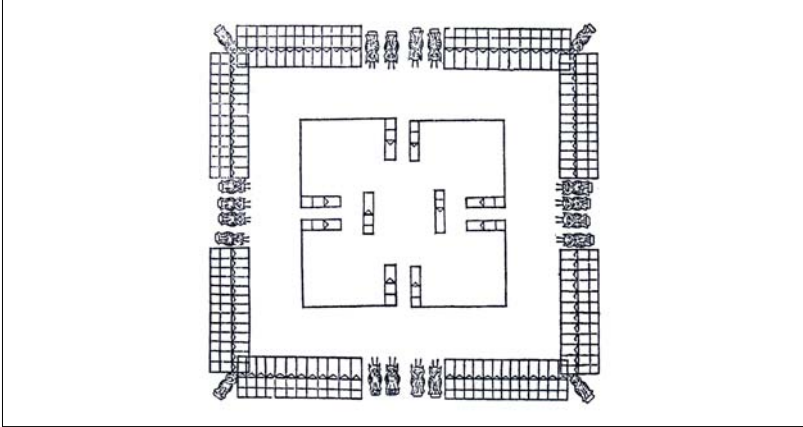
52) 『戎垣必備』 「陣類」 火車方陣圖, “賊來時 塘報遠報警 該面木火獸五輪 齊放一層以應之 塘報近報警 木火獸又齊放二層以應之 賊入百步之內 木火獸齊放三層以應之 後臺上放砲一聲 吹天鵝聲 中軍亦放砲一聲 吹天鵝聲 該面火車日時齊放一層 使賊不得近前衝擊 賊若四面來攻 則四面火車 亦爲齊放.”

53) 『西征日記』 上, 壬申 二月初一日, 二十五日 : 『純祖實錄』 卷15, 純祖 12年 4月 癸亥, 破城事蹟.

< -2>

()

54)



3. 騎兵의 임무 변화와 馬上武藝의 쇠퇴

1)

홍경래의 난을 거치면서 중앙정부는 기병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소시켰다. 특히 순조대 이후로 외척들에 의한 세도정치가 지속되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병은 수포군화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헌종대(憲宗代)에도 지속되었다. 三政이 점차 문란해지는 가운데 특히 군정의 문란이 심각해져 지방에서는 속오군(束伍軍)의 조련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었다.⁵⁴⁾

54) 外疊의 작은 사각형은 火車를 의미하고 중간의 동물모양은 木火獸車를 나타낸다. 이때 步兵과 騎兵은 方陣 안에 배치되어 유사시를 대비하여 輪放을 보호하거나 백병전을 담당하였다.

55)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pp.239~244.

중앙군영은 순조대 이후로 금위영과 어영청의 규모가 축소되고 훈련도감 위주로 운영되면서 기존의 삼군문 수성체제 및 궁궐 수비체제의 한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궁궐 숙위의 경우 단독군영으로 한정될 경우 모반을 비롯한 군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지므로 궁궐의 각 구역 별로 다른 군영이 맡았지만, 중앙군영의 약화로 인하여 훈련도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다.

대표적으로 정조대에는 동궐의 핵심지역에는 주로 장용영 내영의 군사들이 숙위군을 담당하였지만, 혁파 후에는 금호문, 홍화문, 집현문, 영숙문, 송지문, 명례문 등의 핵심 지역은 훈련도감의 군사들이 숙위를 담당하였다.⁵⁶⁾ 또한, 궐외의 경우 남영과 광지영을 훈련도감이 담당하여 전체 숙위군의 절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궁궐 숙위군의 경우 영조대 용호영의 전원 기병체제 유지 기조나 정조대 선기대의 숙위군 편성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기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장용영 혁파 후 상당수가 화약무기를 사용하는 보병으로 대체되면서 기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⁵⁷⁾ 당시 훈련도감 숙위군의 배치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표에서 보다시피 훈련도감의 숙위군은 전체 405명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숙위군을 담당했던 금위영은 궐외를 포함하여 167명, 어영청 140명, 호위청은 31명, 용호영은 101명 등이 있으며, 군영 이외의 병력으로는 도총부 지휘관 47명과 수문장 소속의 83명이 근무하였다.⁵⁸⁾ 따라서 동궐 전체 숙위인원의 구성비로 볼 때 전체 974명의 숙위군 중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훈련도감의 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순조대 이후 훈련도감의 과도한 집중화와 중앙군영 약화 문제는 궁궐의 수비에 동원되는 군사력의 저하로 이어졌으며 현종대에 이를 타개하기

56) 장용영 혁파 후 동궐 수비체제에 대한 대체는 주로 훈련도감과 금위영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핵심지역은 '輦下親兵'이라는 별칭을 사용할 정도로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훈련도감에 더 많은 지역이 배정되었다. (『訓局瞻錄』卷 49, 壬戌 二月初九日)

57) 훈련도감의 궐외 숙위군 중 기병은 동궐의 정문인 敦化門 밖의 南營에 別騎隊 2명과 騎兵 53명이 전부였다. (『萬機要覽』, 軍政編2, 訓練都監, 各處入直)

58) 『萬機要覽』, 軍政編2, 兵曹, 二軍色 騎兵分把.

東關 金虎門	102 명	궐내
東關 弘化門	101 명	궐내
東關 集賢門	16 명	궐내
東關 永肅門	25 명	궐내
東關 崇智門	21 명	궐내
東關 明禮門	33 명	궐내
*南營	56 명	궐외
*廣智營	51 명	궐외
총 계	405 명	궐내외

위하여 무예별감을 증원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⁶⁰⁾

이후 궁궐에 대한 숙위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총융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총위영(總衛營)이라는 국왕친위 군영을 창설하여 기병을 비롯한 약간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이때 새롭게 편성된 인원은 훈련도감의 기병 1초와 별대 1초의 각 109명, 보군 중 좌우부 중사 각 3초 738명과 양사표하군 62명이었다. 이때 보유한 말은 기병용 226필과 보군의복마 54필, 표하군 복마 4필 등 모두 284필이었다.⁶¹⁾

그러나 실질적인 병력의 대부분이 훈련도감에서 분할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궁궐 수비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신 그동안 궁궐 수비 병력의 대장직을 훈신(勳臣)이나 척신(戚臣) 등 세도정권의 실세들이 장악해왔던 것을 국왕이 직접 선택한 문신으로 한정하여 친위병적인 성격은 강

59) 위의 도표는 『萬機要覽』의 軍政編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純祖代 이후 동궐 숙위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申明鎬, 「純祖代 壯勇營 革罷와 東關 宿衛體制」 『軍史』 60, 2006. pp.144~152.

60) 『憲宗實錄』 卷15. 憲宗 12年 正月 庚午.

61) 『備邊司謄錄』 卷, 憲宗 12年 8月 12日, 「總衛營節目」.

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그러나 총위영 또한 창설한 지 채 3년이 되지 못하여 현종이 승하하자 순조대의 장용영처럼 곧바로 혁파되고 만다.⁶³⁾

이처럼 순조대를 거치면서 기병의 주력임무는 전투적 측면보다는 궁궐의 숙위를 위한 방어적 측면으로 한정되었으며, 고종대(高宗代)에 이르러서는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단순한 복마군으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기병들이 궁마를 다루는 법조차 잊었다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기병의 군비 약화추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⁶⁴⁾

또한, 병인양요가 발생할 당시에는 중앙군영의 기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말이 없거나 군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을 편의적으로 숫자만 채워 넣어 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당시 빠른 기동력이 핵심인 기병은 異樣船 출몰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⁶⁵⁾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기병 허설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各營의 馬軍과 哨軍에 말이 없거나 용맹스럽지 못한 자를 사정에 따라 채워 넣었으니, 이것이 軍制인가. 兵曹判書·禁軍別將·各營의 將臣들은 잘 알도록 하라.⁶⁶⁾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양선이 출몰하여 국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자 기병보다는 화약무기를 사용하는 포수의 증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금위영과 어영청의 경우 향군의 번을 돈이나 포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번(正番)의 기한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포군을 대폭 증강하는 방식으로 중앙군의 砲手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⁶⁷⁾

62) 裴允燮,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韓國資料院, 2002. pp.32~35.

63) 『哲宗實錄』 卷1, 哲宗 卽位年 6月 甲午.

64) 『承政院日記』, 高宗 1年, 1月 11日, “逮我熙朝 聖神相繼 五衛三營之設 罔非陰雨之備 然而承平日久 民不知兵 兵事之疎虞 至于近日而極矣 武庫之兵甲 未免苔蠹之蝕 戎垣之部伍 不解弓馬之習 韎韋之士 逐年添額 殆以萬計 而未聞有武藝之超倫者 豈皆材器之不逮於古而然歟 誠以習於侈靡 汨於奔競 不能用心於本技也.”

65) 裴允燮,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韓國資料院, 2002. pp.39~41.

66)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0月 8日, “傳曰 各營馬軍哨軍之無馬者無勇者 循私填充 此是軍制乎 兵判禁軍別將各營將臣知悉.”

67)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2月 24日, “禁御兩營鄉軍 則今既停番 而新設前左右後中哨軍兩

이에 따라 기병의 핵심 역할은 한정적인 궁궐 숙위와 국왕의 행행시 호위 임무 중심으로 점차 축소되었으며,⁶⁸⁾ 부가적으로 짐을 싣는 복마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고종대에는 용호영의 기병대신 복마군(卜馬軍)과 대년군(待年軍)의 일부를 대장의 휘하에서 따로 근무하게 하는 아병화(牙兵化) 작업이 이뤄지는 등 기병의 처우는 낮아지는 대신 복마군에 대한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였다.⁶⁹⁾

2)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중앙군영의 핵심적 변화는 화포를 운용하는 화포군의 증설과 기병의 복마군화였다. 특히 해방과 관련하여 양이(洋夷)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약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관건이었다.

그런데 화약무기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배치해야하는 상황에서 수레보다는 복마의 운반능력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복마군의 확보 역시 요구되었다. 이는 수레가 다닐 정도로 도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군영의 주둔지가 험한 오지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종대 신현(申櫛)이 제시한 ‘군무 6조’에 잘 드러난다. 이 상소의 핵심은 정예 화포군의 증설과 해안과 국경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군적인 성격을 지닌 민보군(民堡軍)의 설치와 운영이었다. 훈련도감에서는 이러한 건의안에 따라 12개조의 「군제 변통별단(軍制變通別單) 을 만들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⁷⁰⁾

營 各爲五哨矣 何營軍兵隨駕 何營軍兵留陣 而禁軍及馬步軍 以幾番幾哨磨鍊 餘軍留營 何以爲之乎.”

68) 『承政院日記』, 高宗 9年, 4月 5日.

69) 『承政院日記』, 高宗 4年, 11月 2日, “又啓曰 龍虎營卜馬軍 與待年軍中六十名 以壯健者抄擇 作牙兵名色 以補軍制 何如傳曰允.”

70) 이때 만들어진 別單의 핵심은 訓練都監 및 中央軍營의 精銳兵 강화와 砲手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운송수단과 관련해서는 卜馬軍에 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내용을 보면, 卜馬軍 30명을 別中司左右哨로 옮기고 4명은 別과진색으로 옮겼다. 또한, 18명은 7색 卜馬軍의 부족한 수를 채우고, 6명은 五司의 吹手와 卜馬軍 가운데 부족한 수를 채운다고 규정하여 卜馬軍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高宗代의 군사적 변화와

「군제변통별단」에 따르면 전대까지 번상병화(番上兵化)로 인하여 축소되었던 중앙군영인 금위영과 어영청에 각 4초의 포군이 신설되었고, 총용청의 경우 포수를 중심으로 난후야병(攔後牙兵) 1초가 증설되었다.⁷¹⁾ 이러한 군영에서의 포수 비중 강화는 중앙군과 지방군 모두에서 이뤄졌는데, 다음의 사료는 변화하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체로 精兵과 利器는 砲手만한 것이 없는데, 이른바 京營의 砲手는 다만 쌀과 배만 축낼 뿐 적을 방어하는 군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있게 되면 소문만 듣고도 도망하여 실로 쓸 수 없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말하더라도 外方에서 온 포수들이 각각 한 쪽을 담당하여 마침내 서양 오랑캐들을 멀리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 (중략) ... 지금부터 各營의 帥臣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날마다 砲手를 연습시키고 그들의 기예를 살펴서 상벌하면 몇 개월 되지 않아 各營의 군사들이 도리어 鄉砲手보다 낮게 될 것입니다.⁷²⁾

위의 사료에서 ‘이번 일’은 병인양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강화도를 공격한 프랑스군에 대적하여 지방 향포수들의 활약이 커 이후 해방을 위하여 향군뿐만 아니라 중앙군에서도 포수의 비중을 높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 변화에 따라 기병전술의 핵심이었던 마상무예는 퇴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포군 강화를 위한 화포과(火砲科)가 새롭게 설행되어 성적우수자에게는 직부전시 자격이 주어지는 등 기존의 기병 위주의 혜택이 포수

申櫛의 국방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朴贊植, 「申櫛의 國防論」 『歷史學報』 117호, 1988. pp.39~55.

71)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2月 24日; 『承政院日記』, 高宗 4年, 2月 17日.

72)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0月 30日, “上曰 所陳切實 當服膺矣 厚祚曰 臣向以陰雨之備不容少緩之意 有所仰達矣 大抵精兵利器 莫如砲手 而所謂京營砲手者 徒竊米布而已 不足爲禦賊之兵 而蒼卒有事 則望風遁走 實無可用者 雖以今番言之 砲手之自外方來者 各當一面 竟使洋醜遠遁 此莫非練習技藝於平日獵蒐之時 獲此巧力之俱至者矣 若使各營將臣 練習砲手 若臨軍之爲 則亦豈不爲精銳之兵乎 練習如此 則精銳亦當如此 而縱有不虞之事 無調發往來之勞 且無遠近騷擾之弊 此乃整頓軍務 以備敵愾之道矣 繼自今 嚴飭各營帥臣 課日組鍊砲手 考其藝而賞罰之 則不幾月 各營之軍 反有勝於鄉砲手矣 願殿下體念焉.”

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⁷³⁾ 그리고 북마군의 경우 금군 기병부대인 용호영의 북마군과 시년군 중 60명을 아병으로 삼고 근임북마군을 5명 추가하는 등 기병의 북마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⁷⁴⁾

이러한 흐름은 기병의 전술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화약무기를 활용하는 화포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점차 기병의 역할을 줄어들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대 무위소(武衛所)가 만들어질 때에도 훈련도감에는 238명의 기병과 북마군 155명이 남아 있어 궁궐 숙위를 위한 목적에서는 마상무예가 지속적으로 훈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⁷⁵⁾ 이는 당시 삼군부(三軍府)에서도 “防守의 계책으로는 射手와 砲手만한 것이 없지만, 馬軍이 호응하는 것도 승패와 관련이 있다.”⁷⁶⁾ 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활이나 조총과 같은 원사무기에 비해 효용은 떨어지지만 아직까지는 도움이 되는 병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종대 궁궐 숙위의 핵심 병력인 금군의 녹시사(祿試射)에서는 유엽전을 비롯하여 가장 기본적인 마상무예인 기추가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⁷⁾ 고종대 금군의 군사훈련과 시취를 통한 무예 현황을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살펴보면 <표-4>과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대에도 군사훈련에서 기추(騎芻)와 기창(騎槍) 등의 마상무예가 시취과목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년시, 경과, 도과 등의 무과규구에도 조총이나 유엽전을 비롯하여 기추와 기창 등의 마상무예가 지정과목으로 고시된 것으로 볼 때 기병의 마상무예

73)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0月 26日; 『承政院日記』, 高宗 4年, 2月 29日;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10月 28日.

74) 『承政院日記』, 高宗 4年, 11月 2日.

75) 裴元燮,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韓國資料院, 2002. pp.125~127.

76) 『承政院日記』, 高宗 8年, 5月 1日, “三軍府啓曰 防守之策 固莫如射砲 而馬軍接應 亦係勝算 馬兵二哨 卽爲調發 使該將官 領率往付于鎮撫營 馬太二百石 船卜下送事分付訓局何如.”

77) 祿試射는 보통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씩 禁軍과 武臣 堂上官을 대상으로 치러졌는데, 高宗代의 기록을 보면 동절기에 騎兵이 달릴 馬路가 얼어붙어 위험성이 있기에 柳葉箭으로 시험을 대체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관련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다. 『承政院日記』, 高宗 2年, 11月 26日; 『承政院日記』, 高宗 12年, 11月 11日;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11月 29日;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0月 18日;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10月 29日.

는 지속적으로 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⁷⁸⁾ 그리고 고종 2년에 편찬된 『대전회통』의 관무제 초시 과목을 보면, 기추·기창교전·편추·마상언월도 등이 장교와 기병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 -4>

80)

元年 2月 25日	鐵箭·片箭·騎芻·柳葉箭	騎芻	慶科
元年 8月 21日	鐵箭·片箭·騎芻·鳥銃·騎槍	騎芻·騎槍	中日習射
元年 10月 23日	柳葉箭·片箭·騎芻	騎芻	禁衛營 諸將官射
元年 11月 8日	騎芻·柳葉箭 (馬路가 열어 柳葉箭 대체)	騎芻	禁軍 祿試射
2年 4月 19日	鐵箭·騎芻·柳葉箭·片箭	騎芻	武科殿試
3年 2月 13日	柳葉箭·片箭·鐵箭·騎芻	騎芻	中日習射
3年 9月 11日	片箭·騎芻·騎槍·鳥銃	騎芻·騎槍	中日習射
3年 11月 23日	鐵箭·柳葉箭·鳥銃·騎芻	騎芻	沔營試射
3年 11月 30日	騎芻·柳葉箭 (馬路가 열어 柳葉箭 대체)	騎芻	禁軍 祿試射
4年 4月 13日	以柳葉箭·片箭·騎芻·鳥銃	騎芻	全羅兵使營 都聚試取
4年 11月 26日	騎芻·柳葉箭 (馬路가 열어 柳葉箭 대체)	騎芻	禁軍 祿試射
5年 1月 26日	鐵箭·騎芻	騎芻	中日習射
5年 1月 26日	鐵箭·騎芻	騎芻	中日習射
5年 11月 20日	騎芻·柳葉箭 (馬路가 열어 柳葉箭 대체)	騎芻	禁軍 祿試射
6年 9月 16日	柳葉箭·騎芻	騎芻	別付料 試射
6年 11月 8日	騎芻·柳葉箭 (馬路가 열어 柳葉箭 대체)	騎芻	禁軍 祿試射

78)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0月 3日 :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2月 4日 : 『承政院日記』, 高宗 4年, 3月 19日 : 『承政院日記』, 高宗 7年, 4月 15日.

79) 『大典會通』卷4, 觀武才 初試, “鐵箭 柳葉箭 片箭 騎芻 增 騎槍交戰 鞭芻 馬上 偃月刀 已上 將校 及 馬軍.”

80) 본 도표는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마상무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도표화한 것이다.

또한, 훈련도감의 마병도시 역시 고종말까지 치러진 것으로 보아 비록 소수지만 금군 및 궁궐을 숙위하던 기병의 마상무예는 지속적으로 훈련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⁸¹⁾ 그런데 조선후기 대표적인 마상무예였던 마상편곤(편추)의 경우는 순조대 이후 무과시취에서는 보이거나 군영 내의 훈련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기수와 기창만이 남은 것으로 볼 때 기병을 활용한 전술이 화포병의 강화와 함께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⁸²⁾

이러한 기병의 마상무예 쇠퇴 현상은 시대적 소임을 다한 병종과 무예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한 병종의 강화와 쇠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세도정치의 시작이었던 19세기 전반기의 군제사적 변화 중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장용영 혁파와 중앙군영의 지속적인 약화였다. 전대인 정조대에 국왕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기존의 오군영을 능가하는 장용영이라는 단독군영을 만드는 등 군비확장세가 지속되었으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순조의 즉위와 동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노론의 시파와 벽파가 장용영에 대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 세력을 축소시키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혁파라는 커다란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보면 순조대에

81)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0月 17日.

82) 純祖代 武科規矩 중 直赴殿試 자격을 보면, “慶科庭試武科殿試時 直赴殿試人規矩 片箭 三矢一百三十步 一巡一中 騎蓆 一次一中 貫革 五矢百二十步 一巡一中 柳葉箭 五矢百二十步 一巡一中 鳥銃 三柄 一巡一中 鞭蓆 一次一中 講書 粗已上取一技”라고 하여 鞭蓆가 鳥銃과 함께 반드시 시험보아야 할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鞭蓆에 대한 지정과목은 純祖 12년까지는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에 直赴殿試의 지정과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기병과 관련된 훈련내용에서도 騎槍과 騎蓆만이 등장할 뿐이다. (『承政院日記』, 純祖 元年, 4月 11日).

장용영이 혁파와 함께 그동안 중앙군영의 핵심 기병대였던 선기대와 친군위가 해체되었다. 이를 필두로 중앙군영에 속해있던 기병들까지도 19세기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또한, 지방 기병의 경우는 숙종대부터 확장세를 유지했던 친기위와 별무사에 대한 현실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실력이 갈수록 떨어져 갔고, 허설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허설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 기병에 대한 각종 혜택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이러한 지방 기병의 위상저하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이는 지방 경제력이 발달함에 따라 문사들의 위상이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武士들의 지위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중앙과 지방의 기병 약화는 곧 조선전체 군사력의 수준저하를 발생시켰다. 여기에 세도정치의 지속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기존 중앙군영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각종 민란이 발생하고 이양선의 출몰을 비롯한 다양한 제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선의 국방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19세기 초 기병전술을 포함한 조선군의 전술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었다. 특히 난이 발생한 평안도는 국경과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상 요충지였기에 난의 진행과정 중 토벌군과 반란군의 전술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전술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천 송림리 전투는 홍경래 난의 최대승부처였기에 이 전투분석을 통해 19세기 기병전술 및 마상무예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전투의 핵심 전술을 보면 관군은 전투가 시작되면서 기병을 이용한 빠른 진압 작전을 구사하는 전통적인 전술보다도 진형을 미리 갖춘 후 조총과 화포 등 각종 화기와 활을 이용한 원사무기로 반군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관군 또한 선봉기병으로 장사군관 40명이 반군의 기병과 마상교전을 치렀지만, 이는 주요한 전술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반란군과 관군 모두 난 초기에 평안도 지역의 핵심 기병인 별무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려 했지만, 실제 전투에서 관군의 전술은 기병을 이용한 돌격전술보다는 활과 화약무기를 이용한 원사무기위주의 전술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군의 경우 정조대에 완성한 거·기·보 통합전법에서 기병의 전술적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순조대 초반 기병 전력의 약화로 인해 기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종을 통하여 난을 진압하려 한 것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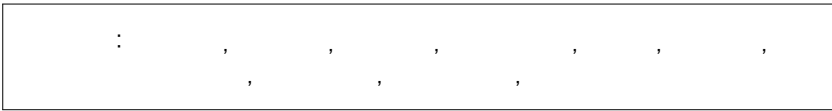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흥경래의 난을 거친 후 훈련대장 박종경이 편찬을 주도한 『용원필비』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용원필비』는 난을 거친 후 빠르게 보강해야 할 조선군의 무기체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화약무기 위주의 편성은 곧 조선군 전술체계의 변화와 직결하는 문제였다. 특히 화거를 주력으로 하는 화거첩진도의 분석을 통해 거기보전법의 확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잦은 이양선의 침입과 병인양요 등을 거치면서 해방 방어를 위해 기병 대신 화포군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병은 북마군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병의 주력 임무는 궁궐을 방어하거나 임금의 어가행렬을 호위하는 등 점차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병이 익혔던 마상무예도 궁궐 숙위군 위주로 한정되어 수련되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해방방어책은 기병전술의 약화를 이끌었고, 기병의 임무가 궁궐위주로 한정되면서 마상무예 역시 쇠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후기 기병의 약화 현상은 동시대 유럽의 전술 변화와도 상당부분 유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도 火器의 보급에 따라 기병 전술의 변화가 확연히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용 소화기인 라이플(rifle)의 보급과 비교적 소형의 후장식(breech-loading) 및 라이플식 대포가 전장에 급격히 보급되면서 이전의 기병의 빠른 돌파력을 이용한 충격전법이 점차 전술적 가치를 잃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를 화약무기 발달과 기병이라는 한 병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19

세기 급변하는 조선후기 상의 다양한 사료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기병 약화 요인은 화약무기의 급격한 보급 이외에도 마정(馬政), 국역체계, 군사 재정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장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병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 병종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군사사의 연구영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1. 12. 28,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ABSTRACT>

The Development of Gunpowder Weapon and the Changes in Cavalry Tactics in the 19th Century

Choi, Hyeong-guk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gunpowder weapon and the changes in cavalry tactics in the 19th century were investigated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martial arts history. The development of *Honggyeongraeran* (洪景來一亂) in the early 19th century most clearly demonstrated the tactics of *Joseon* Army which was in transition at that time.

Typically, the Government Riot Army used gunpowder weapon as the core tactics to suppress the rebellion instead of using mounted troops for fast breakthrough. *Yungwonpilbi* (戎垣必備) compiled by *Park Gyeong-jong*, Military Drill Commander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gunpowder weapon very clearly. Due to the changes in tactics, the duty of cavalry was limited to keeping the palace on night duty, and *Jeonma* (戰馬) was transformed to *Bokma* (卜馬) transporting the cargo. Especially, due to the change in marine defense tactics including hand over lines, the number of artillery increased and cavalry, instead, weakened significantly. Thus, the horseback martial arts training for the cavalry was limited to the army keeping the palace.

Key Words : Gunpowder Weapon, Cavalry Tactics, Horseback Martial Arts, *Honggyeongraeran* (), Artillery, *Byoenginyangyo* (), *Yungwonpilbi* (), *Mangiyoram* (), *Songgrimri* Battle (), Martial Arts History